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하 · 데살로니가전서 · 역대상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열왕기하 · 데살로니가전서 · 역대상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생 명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봄기운을 느끼노라면
홍겨운 마음 절로 솟아나,
문득 봄의 새 생명이 추운 겨울 지나서 오듯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도
피 흘린 고난 지나서 왔음을 기억하고
숙연히 고개를 숙이ना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이제도 주님의 목소리 귓가에 쟁쟁하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b).
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여,
새 봄의 생명의 기운 느끼기 전에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기운
우리 심령에 넘치고 또 넘치게 하시고
그 기운 뿔뿔히 강같이 열방에 흐르게 하소서.

어느 덧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온 대지를
덮듯,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출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4년 3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역대기 서론

역대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디브레 하야밈'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각 시대의 사건들' 또는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이 된다. 어떤 번역본에는 '거룩한 역사 전체를 연대순으로 서술한 책(全書)' (Chronicle of the Whole of Sacred History)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다. 이런 제목이 시사하듯,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저자에 대해서는 확신한 기록이 없다.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흔히 역대기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반복이라고 알려져 있다. 역대기의 내용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역대기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반복이 아니라, '보충·생략·해석'의 과정을 거친 새로운 역사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역대기에는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내용도 단순한 역사 기술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철저히 해석하여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대기를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의 반복으로 본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다. 한편, 역대기를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이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으로 매우 낙심한 상태에 있었고 환경도 좋지 않았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고, 어떤 때에는 전혀 실현 불가능처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 있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직도 택한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전에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한가?" 등의 질문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런 질문이 어디 예루살렘 공동체에만 있겠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한 것인지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역대기에 족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역사 면면히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계속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족보를 자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기를 읽으면서 언약의 불변성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자.

둘째, 순종의 중요성이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의 율법 준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28:7; 대하 6:16; 7:17; 12:1; 33:8). 신실한 왕들 즉, 다윗, 아사, 여

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등은 선지자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반면에 불의한 왕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멸망하고 말았다(대하 21:12-19; 대하 24:19-25; 대하 25:15,16,20; 대하 33:10,11;36:15,16).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역대기 저자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보응이 따른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고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순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제이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리해 놓도록 하자.

셋째,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다. 역대기 저자가 낙심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참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다. 특별히 역대기상에 다윗의 통치가 자세히 기록된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역대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또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찬찬히 되짚어보도록 하자. 이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자.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소망, 곧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하자. 그리하면, 십자가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용분해

1.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계보 1:1-9:44

(1) 아담에서 포로기까지 1:1-3:24

(2) 열 두 지파의 족보 4:1-8:40

(3) 남은 자와 사울의 족보 9:1-44

2. 다윗의 즉위 10:1-12:40

3. 다윗의 통치 13:1-29:30

(1) 언약케의 안치 13:1-17:27

(2) 다윗의 정복 사업 18:1-20:8

(3)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21:1-27:34

(4) 다윗의 마지막 생애 28:1-29:30

위기의 때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왕하 19:35). 그러나 평안할 때에도 여전히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심각한 질병을 통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삼상 12:23)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결코 지도자의 자질이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개인의 생명과 영혼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밖에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는 부와 명성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축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공적을 선전하는 일에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왕하 20:12-15).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본성은 언제나 교만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로 향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육체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구원의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우리의 자랑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히스기야가 시도했던 종교개혁과 신앙회복운동이 자취를 감추고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슬픈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통치기간 동안에 유다는 악을 많이 행하였고(6절) 악을 행한 것이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으며(9,11절). 그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하였습니다(15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악에 대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는 급기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11-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벧전 1:3).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감사의 제목이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왕하 19:31).

므낫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권위와 기회를 주셨건만, 도리어 그것을 범죄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봉사의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연약한 형제들을 돕고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저 큰 사랑을 생각하며 복음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딤후 2:9).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② '위임묵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우리는 옛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합니다. 즉,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롬 5:13).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딤후 3:15-17).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왕국이 율법의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났으며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회복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수리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그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진실한 회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회개의 진정한 능력을 봅니다(행 3:19).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서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눅 7:38).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시 119:12).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 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시아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였습니
다.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
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은 심령의 개혁에서부터 출발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거룩한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
다.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요
시아의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씀을 기초로 한 정결운동입니다. 이로 인
하여 더러운 우상이 제거되고 죄로 얼룩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
기로 서약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을 때 하
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다
른 것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
씀을 왜곡하거나 변경함으로 그 뜻과 의미를 굴절시켜 말씀의 능력이 성
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이제 유다의 경계를 넘어 온 이스라엘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10-22절). 요시아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거룩한 종교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
리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예수님
의 하나님의 아들되심과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데 있
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는 심령의 변
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열
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부흥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헌신된 믿음을 주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유다 왕국의 심판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여전히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불의나 부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끌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신 4:25-27, 왕상 9:7).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너무 늦기 전에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요시야의 죽음과 제1차 바벨론 침공, 여호야김의 죽음과 계속되는 여호야긴의 범죄, 그리고 제2차 바벨론 침공과 시드기야의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왕국의 역사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경고도 완악한 그들의 심령에는 들리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기회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렘 27:7-11).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열방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무서운 심판이 유다 위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으며 성전의 물건들은 약탈당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참혹함을 겪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신실하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렘 21:3-10).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4절). 하나님의 영광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곧 은혜의 길, 복음의 길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된 승리의 길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을 위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 주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27-30절).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약속의 증보자이십니다(딤후 2:5). 오늘도 증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히7:22)

기도 제목 / 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교회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소분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3절). 그들을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진보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참 모범이 되었습니다(7절). 믿음의 역사(행동하는 믿음)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그들의 구원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진실한 믿음은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역경을 극복한 그들의 헌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참된 믿음은 과거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은 온전하게 되고 신앙은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요15:45).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철저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였습니다(시 47:7). 날마다 자신들이 전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10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사랑위에 세워졌습니다(요일 4:16).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2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종의 자세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7절).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9절). 바울의 이런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도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13절). 그 결과 그들은 말씀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요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선포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 기쁜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줍니다(14절).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심정을 따라. 말로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교인들을 직접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으며, 바울의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7절).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신자들이 굳게 서기를 바라는 전도자의 애타는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돕기를 원했습니다(10절).

바울의 이런 심정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롬 8:34).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13절).

주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빚어 사용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한 길 가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14절). 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망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굳이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죽음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b)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이제 죽음은 천국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요 11:25-2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한 때 엉터리 종말론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가르침을 믿고 따랐지만, 이 엉터리 종말론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누군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롬 13:11). 본 장에서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2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홀연히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3절).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섣뚱 반기지 못하는 이유는 웬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9절).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진노의 날이 아니요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때 우리는 부활하여,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앞서 인용한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복음의 길을 힘차게 걷도록 합시다.

기도 제목 / ①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후손에까지 이르는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나열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고 있자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그러므로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어나갈 때, 무심코 지나쳐 읽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 의도를 생각해 보며 읽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본 장에 기록된 계보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단순히 죄악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공훈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맨 처음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며(창 3:15) 그를 통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공훈입니까! 실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공훈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마땅히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공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입증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은총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공훈을 베푸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과, 특별히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 자손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장에서 눈여겨 볼 것은 4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라.” 여기에 언급된 ‘베레스’는 다윗 왕가의 직계 조상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됩니다(창 38:1-30 참조). 인간의 윤리로 ‘베레스’를 보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그 운명이 기구하고 불운해야 옳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윤리적인 완벽함이나 인간의 자격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5-16).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까닭에 오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것은 우리가 늘 불러야 하는 찬송의 주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여,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특별히 솔로몬에서부터 시:기야까지 이어지는 왕의 계보가 나오고 있으며,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고나의 자손들의 이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대충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은 본 장에 기록된 왕들의 계보를 읽으면서,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두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짧은 세월을 살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식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왕들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왕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본 장에는 그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그들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렘 17:10). 그렇다면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을 늘 기억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앞서 언급된(대상 2:3-55)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누락된 유다 지파의 후손들(1-23절)을 기록하면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베레스(1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귀한 자가 된 야베스(9,10절), 이스라엘의 첫 사사 웃니엘(13절),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믿음의 용사 갈렙(15절), 바로의 딸(비디아)과 결혼한 메렛(18절)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얻은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마 1:3).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혈통에서 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시므온 지파의 족보(24-27절), 거주 지역들(28-33절) 그리고 영토 정복 기사(42,43절)가 나타납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의 영토 정복을 통해 다윗 시대에 거의 진멸되고 그 일부만 남아 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벌과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출 17:14-16). 이는 아말렉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요 16:8).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지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창 49:3,4).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은 고핫 자손인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음을 당합니다(민 16:28-35). 르우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브에라는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포로가 되고, 벨라는 생축이 번성하여 유브라데 강에서 광야에까지 미치는 큰 영토를 차지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갓 지파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요담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에 전성기를 구가합니다(왕하 14:23). 이처럼 갓 지파의 전성기를 족보에서 소개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왕국의 재건과 부흥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연합하던 세 지파, 곧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半) 지파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착 초기, 하나님을 의뢰하여 주변 족속을 물리친 일(18-22절)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길로 들어서면서 가졌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첫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아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사닥까지 대제사장의 계보(1-15절), 레위의 세 아들-게르손, 그핫, 므라리가 낳은 후손들의 족보(16-30절), 레위 지파 가운데 성가대로 섬긴 사람들의 족보(31-48절), 아론의 자손들(49-53절) 그리고 레위 지파의 기업(54-8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몫으로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민 3:12,13).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선민의 신앙과 생활지침으로서 주어진 각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며 제사 제도 유지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이, 전국에 퍼져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비록 각 지역에 널리 퍼져있었지만 하나님 한분을 섬기는 신앙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와 율법 업무를 관장했던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받기도 했기 때문에(왕상 2:26,27) 이들 제사장직은 완전한 대속(代贖)의 직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으로 진정한 속죄를 행하십니다(히 2:17;15:5).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잇사갈부터 베냐민까지의 여섯 지파는 요단 서편에 살았는데 다윗 왕가를 버린 북이스라엘의 지파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당할 때(B.C. 722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앗수르에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과 우상숭배를 반대하여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대하 34:6).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장의 기록 목적 또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을 재건할 여섯 지파 출신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각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병력의 숫자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재건과 새로운 신정왕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장에서 특이한 사항은 단과 스블론 지파의 족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과 스블론 지파는 가나안 땅 최북단에 위치하여 예루살렘 성소와 멀리 떨어진 탓에 이방의 우상숭배에 심각하게 물들었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선민의 족보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혈통으로는 선민이라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더 이상 선민의 족보 속에 이름을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요 1:13,14).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욱 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베냐민 지파가 7장에 이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삼상 10:17-24).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신정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지대한 공을 세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느 11:4,7). 더욱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고(삿 3:15)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에훗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비록 1대에 그쳤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계보는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큰 용사의 가문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40절).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즉 요나단이 자신을 돌보아 주는 대신 자신이 만일 왕이 된다면 요나단의 집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입니다(삼하 21:7).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까지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때(렘 23:5,6),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자세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의 족보를 마무리하고, 본 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반 백성과 제사장 및 레위인의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장을 통해 4장부터 전개된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1절), 더 나아가 새로운 신정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부흥시킬 소망을 심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 성소 근처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신정왕국의 재건에 지대한 공을 세운 유다 지파와(3-6절)와 베냐민 지파(7-9절)를 부각시켜 소개한 것과 제사장(10-13절)과 레위인의 족보(14-34절)를 다시 언급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의 손에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모진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1절). 따라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에게는 말씀에 근거한 성결한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약 3:17), 성결한 삶은 물론 성결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성결한 믿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결한 믿음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복음의 은총을 깨닫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상적인 지략에 뛰어났던 사울은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길보아 산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엄청난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자살하고 그의 세 아들과 온 집도 함께 죽는, 그야말로 '사울 가문의 몰락'이 현실화되었습니다(6절). 성경은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의 가문도 몰락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13절).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과 전쟁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몰락으로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신정왕국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범죄와 최후를 보면서, 참된 순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어떤 제사보다 우월합니다(렘 7:23). 아무리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눅 8:21).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몸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빌 2:8). 이것이 참된 순종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2절).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함께 소유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정왕국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즉위 후, 훗날 성전이 건축되어 신정왕국의 기틀을 마련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6절). 이 같은 신정왕국의 수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9절). 무엇보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기사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의 폐허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 왕조의 출범은 개인뿐만 아니라 구속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사울 왕조는 사람의 뜻으로 세운 것이기에 사울의 불순종으로 결국 몰락했지만, 다윗 왕조의 출범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삼상 16:13)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갈 4:4),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과 긍휼을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엡 1:9).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며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사울 왕이 죽기 이전에 다윗에게로 왔던 용사들의 명단(1-22절)과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을 부었던 용사들의 명단(23-4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장의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되 시기적절하게 역사하심으로 자신의 택하신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은혜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희락이 있었습니다(40절).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기쁨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할 때에만 완전한 기쁨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벧전 1:8).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이 결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환영했기 때문에 참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달리 지속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접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기 때문입니다(시 16:11; 사 51:11).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슬픔과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다윗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의논하는 다윗의 모습(1-5절), 그 계획을 규례에 맞지 않게 착수하는 장면(6-8절), 그리고 부주의로 급사한 옷사(9-11절)와 법궤를 오벰에돔의 집으로 옮기는 장면(12-14절) 등이 본 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서 다윗 왕조가 지냈던 찬란했던 영광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다윗 왕의 즉위로 인해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후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언제나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누시는 것입니다.

한편 본 장의 주제가 되고 있는 언약궤의 이동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이스라엘의 관심이 여호와 신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신정왕국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법궤를 안치함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 안치에 대한 기대감에 들뜬 나머지 법궤 이송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다윗과 온 백성은 한 차례 신앙적 연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예루살렘에서 크게 흥왕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언급한 전반부(1-7절)와 즉위 직후 하나님의 인도 하에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치는 장면을 기술한 중반부(8-12절) 그리고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 대군을 기습 공격으로 섬멸하는 모습을 기록한 후반부(13-1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장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다윗 왕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2절).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높이시고 그의 나라를 크게 부흥시켜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나라의 번영이 순전히 이스라엘에게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자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은 자기중심적이었던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 번영의 기미가 보이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성도로서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주시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벰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담겨있는 본 장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다윗 왕의 모습(1-15절)과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의 봉사(16-24절)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모셔오는 온 이스라엘 무리들의 찬양(25-29절)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의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앙에 모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기 위함이었습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가 온 나라 안에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보여준 자세는 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것이었습니다(마 22:37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 왕은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준수한 결과 언약궤 이송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큰 권능이 나라 안팎에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뱀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갑시다.

기도제목 / 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지속된 다윗 왕의 경건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 및 감사의 노래(7-36절)와 제사에 관계한 레위인들의 직무(37-43절)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감격과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다윗 왕의 간절한 호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12,13,15절).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아무 목적도 없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건설적인 목적을 위하여 과거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서 자신이 스스로 낙심한 영혼을 소생시키며 침체된 신앙을 부흥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제도를 세우시고 자기를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눅 22:19절). 즉 교회가 성만찬시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 성도는 그 기억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활동이 마음 곧 영혼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마음에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영혼 안에서 사고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사역,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적 삶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시 103:18).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 제목 / 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사무엘하 7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저 유명한 다윗 언약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인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던 언약이 다윗 사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한 씨인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 다윗 왕조의 번영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다윗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삼하 7:14절). 그 조건이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조의 견고성과 영원성은 참된 순종 및 참된 신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범죄치 않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 언약의 영원성이란 하나님 편에서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영원히 성취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과 순종도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신앙과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완전한 성취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 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복종시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의 대외 정복사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복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불과 수년 만에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을 격파합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승리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쟁취해야 하는 승리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였듯이 오늘날 교회도 사방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은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세력의 침입을 허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죄악의 세력을 최선을 다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적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다윗 왕이 보여 준 승리의 비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안팎에 있던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승리는 다윗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승리는 오직 그가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어디에나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의 비결은 다시 한 번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대상 18:6).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위협하는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다윗이 요압의 정예부대를 보내어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투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투가 다윗 왕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하나였고(17:8),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의 신앙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13절). 이러한 본 장에서 우리는 다윗을 모욕한 자나 그 모욕한 자를 돕는 자들이 다윗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자기를 욕보인 자들 모두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이 다윗의 사절들에게 욕보인 것은 곧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이요, 다윗 왕을 모욕한 것은 동시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을 모욕한 암몬의 행동이나 그러한 암몬을 도운 아람 족속의 행동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장은 단순히 다윗 왕이 행한 대적들에 대한 보복을 기술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게 보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수치를 당신 자신의 수치로 여기시고 그 자녀들의 명예를 위해 원수들에게 칼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살아남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삼상 2:10절),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나 성도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므로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다윗이 암몬을 완전히 격파하고 블레셋 원정에서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장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12장 26-31절에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요압의 탁월한 활약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견고한 성 랍바를 함락시킴으로써 암몬 정벌을 실현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의 이러한 영웅적 행동 못지 않게 또 하나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암몬 정벌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한 뒤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다윗 왕을 모셔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모셔왔던 것은 이미 정복된 것이나 다름없는 암몬 족속을 자기의 이름으로 정복하기 보다는 다윗 왕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요압의 충성은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에게 돌리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모든 영광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된 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보내신 종이요, 세워주신 신하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모든 영광을 오직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기도 제목 / ① 모든 영광을 오직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

주의 만찬의 능력

● 찬송/ 285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 본문/ 고전 11:27-30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주의 만찬, 곧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번 설교는 어떤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성찬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성령의 역사에 비중을 두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을 경건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고린도전서 11장 27-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24절 - 아래 말씀에서 '너희'와 '나'는 각각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 < > () '나' < > ()

2) 24절 - 1)의 내용을 볼 때, 주의 만찬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일까요?

① 초신자들 ② 중직자들 ③ 불신자들 ④ 모든 신자들

3) 26절 - 주의 만찬은 단순히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것"

4) 27절 -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

- 5) 28절 -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주의 만찬의 능력」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 1) '오직 신자만을 위한 만찬'의 단락을 읽고

질문) 왜 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까? 왜 오직 신자들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빈칸을 채우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답)

- ① 주의 만찬은 이 자기 을 위하여 계획하셨고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 ② 주의 만찬은 복음의 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있는 사람들뿐이기 때문이다.

보기> 성령님, 예수님 / 백성, 죽음/ 선물, 능력/
증거, 사랑/ 믿고, 살고

2)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 바르게 참여할 때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영적인

3)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연결해 보십시오.

답)

주의 만찬의 능력을 믿지 않고 건성으로 참여하면 ·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하면 ·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4) '주의 만찬과 성령의 역사'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개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5) '주의 만찬과 성령의 역사'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어떻게 하면 주의 만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침입을 수 있습니까?

답)

6) '주의 만찬의 능력'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지금까지 주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제일 크게 도움이 된 일이 있었다면, 한 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여러분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며 예수님을 진지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주의 만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연합되어 영원한 기쁨을 맛볼 것이며,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질 것입니다. 구속 받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영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1. 감사 /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주의 만찬에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식 위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깊이 감사케 하옵소서.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대 로코였 수 할라라 할라로 드 로을로 로코스라 드 수로 모섬오 \ 라를 드
 라 할라라라 라라주라를 올글라
 라 라라라 라주 로라라로 클라 라를 로코스라 드 라라라 로라라 \ 두드 드
 라 라라 수 할라를 라라라라 라라라 라주 올라라 라라 라라라 라라
 모 라라라 할라로 산드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올라 라라라 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소올라 라라라 라라 할라로 라주 라라라라 라
 라소올라 라라 수 할라 라라 라라 올을로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 라라 라주 드

제 2 과.....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 찬송/ 321장(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본문/ 사 55:6-9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는 구원이 대가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이킴' 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돌이킴' 이 어떤 내용인지도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이사야 55장 6-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 1) 6-7절 -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 2) 6-7절 - 거의 같은 표현이 네 차례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일까요?

- 3) 7절-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악인 · · · 그 길을 버려야 한다

불의한 자 · · ·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 4) 7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그가

그가 널리

5) 9절- 왜 하나님은 9절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선물로 받는 구원과 돌이킴'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래 구절을 읽고, 내용상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 55:1).

답)

‘목마른 자들’ ·	· 영생을 얻으러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	·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
‘돈 없는 자’ ·	·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로 영생을 얻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	·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의 상태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 ·	·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2) '선물로 받는 구원과 돌이킴'의 단락을 읽고...

질문)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 또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십시오.

답) “하나님께서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있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3) '돌이켜 그리스도를 찾으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돌이킴' 곧 회개는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사 55:7)

답) "우리의 ☐ 과 ☐ 을 버리는 것이 회심입니다. (중략) 여러분
의 자존심과 게으름과 적개심과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십시오."

4) '돌이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어떻게 하면 '돌이킴' 곧 회개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답)

①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

② 죄를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③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5) '돌이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행 13:38-39).

답)

6)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의 설교 전체를 되새김질하며...

질문) 근래 생활하면서 또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로 돌아
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을 나가면서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을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을 얻는 길은 충분하고, 완전히 공정하며 안전하고 매우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죄인들이여, 지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고 새로운 축복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 하나님의 초대에 빨리 응답하십시오.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일은 사순절 기간 중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다함께 기도하십시오. “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1. 감사 / 죄악 속에 있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생의 길로 불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참된 회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단기선교팀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 3 과 ●●●●●●●●

새로운 출발

● 찬송/ 377장(예수 따라가며) ● 본문/ 여호수아 5:9-15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전통이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 성 함락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의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점검해 보고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여호수아 5:1-15를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 1) 1-2절 :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를 행하라”

- 2) 4-5절 : 하나님이 위와 같이 명령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 3) 9절 :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날 애굽의 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수 5:9).

- 4) 10절 :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무슨 절기를 지켰습니까?

① 추수감사절 ② 부림절 ③ 유월절

5) 14절 :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만난 '여호와와 군대장관'은 누구일까요?

① 모세

② 사무엘

③ 예수님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새로운 출발」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새로운 시작'의 단락을 읽고...

질문)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까?

답)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지도자 는 이미 죽었다

새로운 지도자 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2) '새로운 시작'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답)

3) '순종과 축복'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답)

-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심(9절) · 가나안 땅의 열매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
-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하심(12절) · 가나안 정복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심

4) '순종과 축복'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답) 이 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과거를 잊고 을 의지하던 삶을 온전히 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한다.

해져야 한다.

5) '경배하며 순종하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여호와와의 군대장관 앞에 엎드려 절한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

6) '새로운 출발'이라는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의 복종 (문답)
 복종 (문답)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도전받은 내용이 있다면 간단
 하게 말해 보십시오. (문답)
 답) (답)

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실로 위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관습과 전통을 잘라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진 구원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서신 곳은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1. 감사 /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제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늘 새롭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충현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잘못된 관습과 전통을 버리며, 오직 말씀을 따라 전진케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금강산 관광수익

休斯代尔公司

제 4과

예수님의 제자는

✎ 찬송/ 514장(누가 주를 따라) ✎ 본문/ 막 8:34-36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하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에게 있는 특징을 정리해 줌으로써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를 규명해 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마가복음 8장 34-36절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34절 :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하고 자기 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 35절 :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것이요”

3) 36절 :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
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리라”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예수님의 제자는」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예수님 중심의 사람'의 단락을 읽고...

질문) 참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답)

2)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단락을 읽고...

질문) 참된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답)

3)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단락을 읽고...

질문) 참된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답)

4)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단락을 읽고...

질문) 참된 제자의 네 번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답)

5)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단락을 읽고...

질문) 참된 제자의 다섯 번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답)

6) 「예수님의 제자는」의 설교문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도전받은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돌아가면서 말해보십시오.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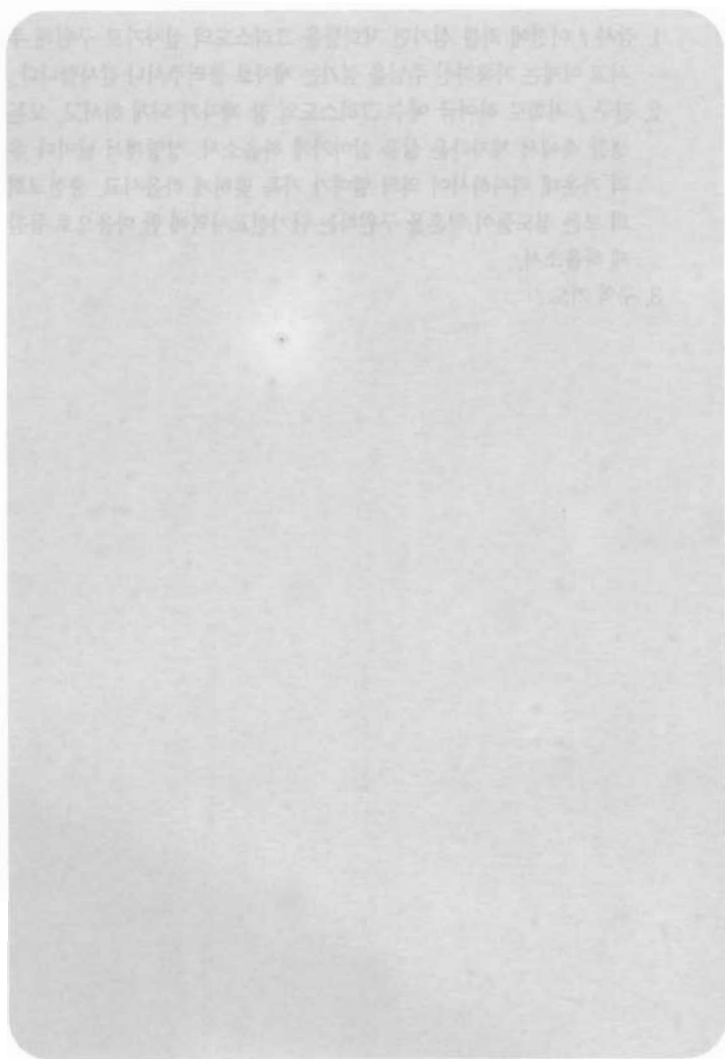
나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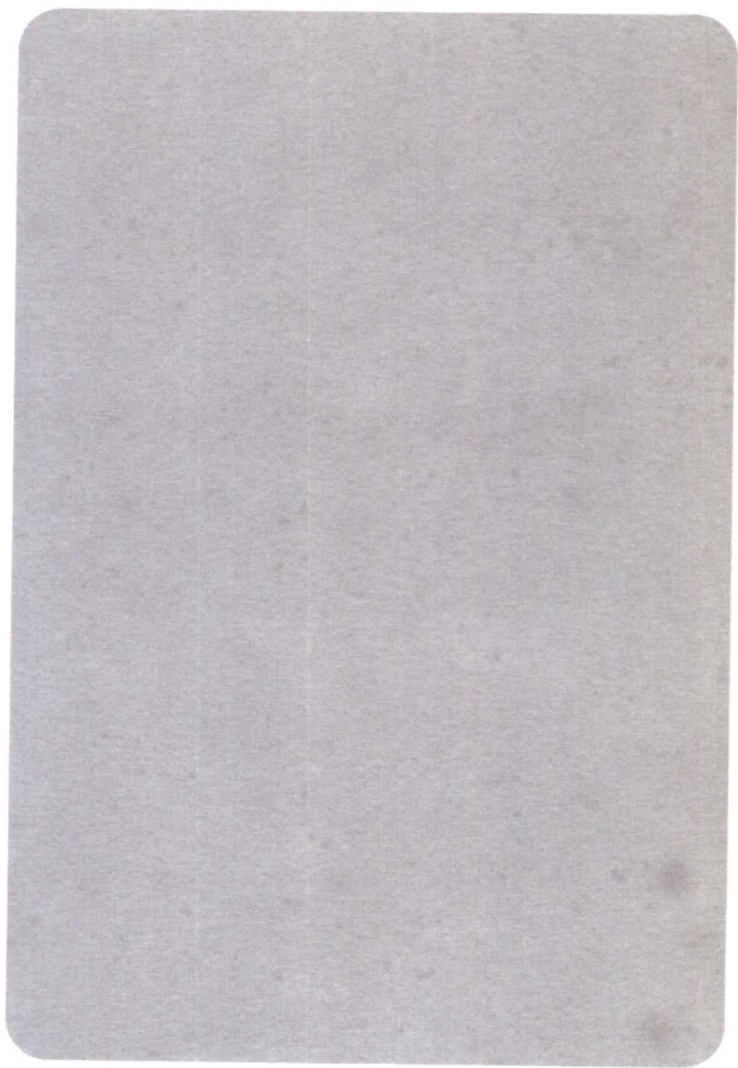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 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이번 주일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산에 우뚝 선 십자가까지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1. 감사 / 이전에 죄를 섬기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옵시고,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단기선교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케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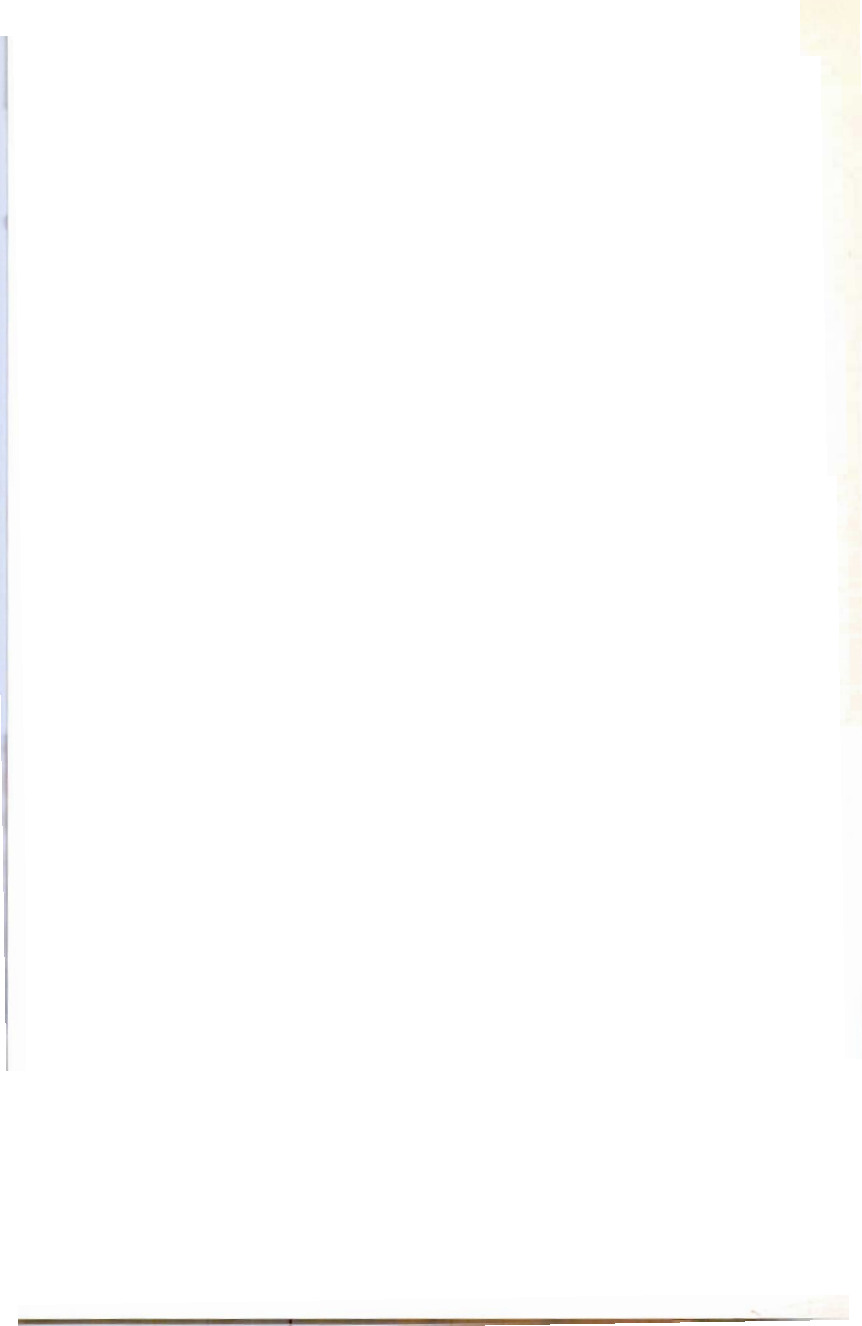
한동해안도코방첩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본 '한동해안도' 중 '한동해안도'는 '한동해안도' 4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한동해안도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4년 3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이성진(1-7일), 최성규(8-14일), 이재영(15-22일),
조규호(23-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